http://dx.doi.org/10.15686/FKL.46.0.11

【서 평】

# 교차성의 정치학(Politics of intersectionality)

- 한우리 외, 『교차성X페미니즘』(여이연, 2018)
  전혜은 외, 『퀴어 페미니스트, 교차성을 사유하다』(여이연, 2018)

황지성*

한국 사회에서 교차성은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혹은 교차성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교차성'과 관련해 이러한 질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동시에 최근 '교차성'을 아예 제목에 명시적으로 달고 있거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서적들이 줄지어 (재)출간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첨예한 논쟁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증거다.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폭발적 주목을 받고 여성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가시성을 획득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례적 현상이었다.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선명한 이름으로 '급진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마당에 왜 굳이 '교차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는지, 나아가 그것이 성, 인종, 계급, 장애, 연령 등 다양한 차이들의 문제를 내세움으로써 '여성'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거나 분산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성문화이론 연구소>에서 펴내고, 본 연구소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두터운 페미니즘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인연으로 엮여져 집필된 『교차성X페미니즘』과 『퀴어 페미니스트, 교차성을 사유하다』, 이 두 권의 책은

*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수료. '페미니스트 장애학'이라 불리는 영역에 매력을 느껴 페미니즘/퀴어/장애학 이론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바로 그 질문을 향한 대답이다. 최근 페미니즘 출판물의 양적·수적 증가 속에서 국외 비백인 또는/그리고 퀴어 페미니스트의 저작들도 꾸준히 번역 출간되고 있고, 이들의 논의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성찰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과 교차성을 둘러싼 담론 공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고 있는 저자들이 바로 '참여'의 일환으로(두 저작 모두 각자 기획, 진행된 대중 강좌와 포럼의 결과물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내놓은 이 책들의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사실 교차성은 이제 막 한국에 소개된 '새로운' 이론이나 실천이 전혀 아니다. 책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교차성 이론 자체가 태동한 역사는 오래됐다. 또 교차성은 '페미니즘' 뿐 아니라 다양한 비판 이론 및 '소수자' 운동들과 함께 상호 참조와 영향 속에서 정교화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소수자 정치학이 활발하게 활기를 띠기 시작한 이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운동 영역들이 서로의 실천들과 마주치고 다양하게 엮이면서 교차성 의제를 벼리고 성찰해 왔다고 하겠다. 두 책 모두에서 언급되지는 않지만, 보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주로 사회복지 관련 영역)에서도 교차성 담론에 기대, (비록 직접적으로 '교차성'을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현실 제도 내에 포섭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차성'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이 책들의 대답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책이 각각 더 강조해 조명하고자 하는 영역이나 키워드는 다소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여성 혹은 젠더(또한 다른 섹슈얼리티, 장애, 인종 등의 영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만' 가지고 억압을 얘기하자는 식의 최근 페미니즘 일각의 주장은 불가능한 기획이라는 것을 일깨운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차성이라는 개념 혹은 도구가 완결되고 흠 없는 대안을 주는(혹은 심지어 해방을 약속하는) 해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역시 아니다. 다만, 저자들은

'교차성'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잡한 지금의 지형과 역사성을 통감하며 그럼에도 배제되어온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는 다른 '타자들'이 '같은 자리'에 서서 함께 새로운 언어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자고 적극 제안하고, 이를 위한 유용한 지식과 방법들을 풍부하게 공유하고 있다. 저자들이 제안하는 그러한 노력은 어쩌면 영원히 완결될 수 없을지 모르고, 더 "느리고 어려운 실천" 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나와 우리의 경계를 '퀴어하게' 확장해 나가는 생동감 넘치고 흥미로운 작업이라는 것만으로도 교차성의 정치학은 어마어마한 해방의 잠재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제설정으로서 '교차성'

페미니즘에서 교차성은 여성들의 사회적 실존·현실(reality)을 분석하는 언어·담론이지, 실존이나 현실 그 자체는 아니다. 여성들의 실존·현실에 대한 '담론'으로서 교차성은 현재 한국 사회 페미니즘 일각에서 교차성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보여주듯, 오랜 시간 동안 경합을 벌여왔다. 담론이 무엇을 '문제'로 '구성'하는가는 상이한 사회들의 문화와 역사, 도덕적 지향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동시 작동하는, 완결되지 않는 과정이다. 요컨대 '문제설정'(problematization)은 상이한 개인과 집합이 참여하는 담론적 의미화의 과정이며, 사회나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따라서 어느 하나가 배타적 우위성을 점할 수 없고, 무엇보다 실존이나 현실 그 자체와 다를 수 있다.

수많은 차이를 가지고 다른 사회문화적 시공간에 놓인 여성들의 복잡한 실존, 현실을 한 마디로 '여성억압의 하나의 구조가 있다',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하나의 억압의 기원이 있다'라고 정의하는 이론이 있다고 해보자. 당신은 이 이론에 설득당할 것 같은가? 지성사에서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담론이 선험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오래

전에 이미 상식이 되었고, 페미니즘 스스로가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담론의 특권을 가장 선구적으로 비판해 온 대표적 이데올로기·담론이다. 흑인이자 레즈비언인 작가 오드리 로드(Audre Lorde)[1]의 말처럼, 사람들(여성들) 사이에는 수많은 실제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차이 자체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을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것은 여성들 간의 차이나 실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타적·특권적으로 담론화하려는 시도다. 페미니즘에서 서구 백인여성들의 억압을 설명하는 언어나 담론이 비백인 여성들의 억압 뿐 아니라 그 존재까지 의미화하는 데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로 흑인 페미니즘과 교차성이 강력하게 제기된 것을 떠올려보자.

담론적 '문제설정'을 개인이나 집합이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고 할 때, 해당 개인이나 집합이 처한 상이한 조건들 자체를 통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문제설정 수준에서 모든 차이는 중립적 또는 상대적인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일까? 차이를 구성하는 개인 및 집단의 사고나 체험에  상호 개입하거나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는 아예 없는 것일까? 필자는 '교차성' 이론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개입한다고 생각한다. 인식과 사고의 주체로서 인간에게는 이미 언제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고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 교차성 정치학이 제시하는 도전이자 가능성인 것이다.

그러나 인식의 주체로서 우리가 스스로의 인식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그리하여 교차성을 둘러싸고 많은 오해와 오독이 발생한다. 가장 흔한 오해는 A+B+C+D…의 무한대의 더하기 모델인데, 마치 교차성의 대상 범주가 미리 완결된 상태로 주어져 있고, 이들 범주를 총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인 양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책의 저자들이 일관되게 강조하듯, 하나의 범주는 결코 완결된 상태로 정의할 수 없고 끊임없이 다른 범주들과

1) 오드리 로드, 박미선· 주혜연 역, 『시스터 아웃사이더』, 후마니타스. 2018, 195쪽

의 상호 작용 속에서 침투하며, 그 과정에서 하나의 범주는 완전히 재정립되기도 한다. 서구 백인 여성들의 '젠더' 개념은 비백인이나 비서구 여성들의 경험과 만나면서 부서질 수 밖에 없고, 전자의 '젠더'는 이미 인종화되고 민족화 된 문제설정이라는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다. 더하기 모델과 연동해서, 교차성을 누가 가장 억압받는 사람인지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역시 교차성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다. 이런 관점은 가장 주변화 된 정체성들의 형상(이를테면 '흑인여성이자 레즈비언', '이주여성 비혼모')에게만 교차성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는 문제를 초래하고 결국 교차성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범주'로 만들어진다. 교차성은 특정 범주의 사람들의 특징(chracteristic)으로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 즉 백인이나 시스젠더, 비장애인에게 인종주의나 젠더이분법, 정상성의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2]. 페미니스트 장애학 연구자 케이퍼와 김은정(Kafer & Kim)이 지적하듯, 교차성은 주변화 된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머물 수 없고, 바로 그 주변화 된 정체성을 만든 지배적 구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 탈-주체화의 윤리로서 '교차성'

다시 주체의 인식 불/가능성의 문제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의 범주에 투영하는 개인 및 집단의 동질성에 대한 환상 혹은 '정체성'과 관련해 인종이론, 퀴어 및 장애학 등 '소수자' 이론들의 비판적 작업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서구, 백인, 남성, 유산계급, (인간)종種을 특권화한 근대적 주체화 그리고 생명권력의 통치성이라는 짝패에 주목한다. 근대 자유주의 세계를 통솔하는 권력의 형태인 '통치성'은 인민을 "살게하는

2) Alison Kafer and Eunjung Kim, "Disability and the edges of intersectionality", eds., Clare Barker and Stuart Murray, *The Cambridge companion to literature and disability,*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P, 2018.

권력"[3] 즉 생명권력의 형태를 띤다. 그러나 장애인과 유색인, 여성, 퀴어 등에게는 최소한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으며, 심지어 폭력이나 '죽음과 겹쳐지는 삶'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처럼 생명권력은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는 개인 및 집단과 반대로 취약성과 불능, 죽음을 할당받는 집단을 나누어 분할 통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할에 있어서 특정하게 독립적인 범주나 정체성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 지식과 합리성, 규범 같은 담론과 기술 즉 19-20세기 내내 맹위를 떨친 우생학, 성과학, 통계학, 심리학, 보건학[4] 등은 생명·삶을 누릴 만한 인구와 그것을 금지해야 할 인구를 가르는 갖가지 '과학적' 측정과 분류를 시도했다. 출생률, 유병률, 수명, 생산성, 가임률 등의 통계적 측량에 기대어 생명의 규범을 만들고, 정상적인 것은 이 규범에 부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반대로 비정상적인 것은 무능력이 된다[5]. 이렇게 열등하고 무능력한 '비정상' 으로 만들어진 인구는 특정한 사회 규범과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들의 비정상성은 생물학적이고 종種적인 차이로서 자연화된다. 요컨대, 생명정치적 불능과 취약성, 죽음을 할당받는 인구는 당대의 규범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든 '비정상'인구지, 특정 정체성이나 범주'만'의 억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주체 내지 정체성 범주를 생명정치의 효과로 이해할 때, 그것은 (이분법적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언제나 젠더화·인종화되고 동시에 결함 및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장애화)되기도 하는[6] 타자들의

3) 미셸 푸코, 김상운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76』, 난장, 2010, 289쪽.

4)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1: 앎의 의지』, 서울: 나남, 2004; 게일 루빈, 신혜수 외 역, 「성을 사유하기」, 『일탈: 게일 루빈 선집』, 현실문화, 2015; Lennard Davis, *Enforcing normalcy: Disability, deafness, and the body,* London·New York: Verso, 1995; David Valentine, *Imagining transgender: An ethnography of a category,* Durham and London: Duke UP, 2007.

5) 미셸 푸코, 심세광 외 역,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 난장, 2011, 92쪽.

생산을 수반한다는 인식이 가능해진다. 하나의 억압이 다른 모든 억압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의 특권화는, 인종, 젠더, 계급, 종 등이 타자를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는데 동시에 이용되고, 성적 타자화가 언제나 질병이나 장애의 언어를 빌리는 식으로 작동되는 등, 중층적 업압·타자화에 대한 교차적 분석을 가로막는다.[7] 주체화는 바로 그 주체가 가능하게 하는 경계들, 즉 무수한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동시 성립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규범(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자동적으로 저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규범을 반대하거나 깎아내릴 수는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탈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코의 논의를 다시 빌려 온다면, 윤리의 수준에서 우리는 저항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푸코에 따르면 윤리는 도덕규범의 주체로서 개인들이 스스로를 성립하는 자기 주체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8] 그리고 생명권력이 추동하는 주체화의 폭력에 저항하는데 있어 핵심은 '타자의 윤리'를 모색하는 것이다.[9] 주체의 생산은 타자와의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 없기에, 윤리적 탈-주체화의 저항 역시 타자의 윤리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타자의 윤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않은 혹은 인식 불가능한 욕망, 행위, 존재들과의 마주침에 열려있음으로써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교차성X페미니즘』, 『퀴어 페미니스트, 교차성을 사유하다』는 이에 관한 풍부한 성찰의 계기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하나의 예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장애여성이나 퀴어 장애인 같은, 성적 주체의 위치에서 탈락됐거나 위험한 섹슈얼리티라는 혐의를 받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 「장애와 퀴어의 교차성을 사유하다」에서 논증하듯,

---

6) 프란츠 파농, 노서경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문학동네, 2004, 118쪽.
7) Alison Kafer and Eunjung Kim, op.cit., pp. 127-8.
8) 미셸 푸코, 문경자 역, 『성의역사 2: 쾌락의 활용』, 나남, 2004.
9) Lynne Huffer, "Foucault's eros: For an ethics of living in biopower", eds., Christopher Falzon, Timothy O'Leary, and Jana Sawicki, *A companion to Foucault*,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13.

에이섹슈얼, 자폐인, 절단 장애인이면서 퀴어인 다양한 '타자들'이 겪는 억압의 경험과 욕망의 복잡한 서사는, "수치심과 욕망과 혐오와 위협이 뒤얽힌 불확실성과 양가감정"[10]을 선사하지만, 이러한 계속된 말하기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강고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사회에서 소수자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른 욕망과 행위의 가능성을 찾아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된다. 「페미니즘과 퀴어, 그리고 적녹보라 패러다임」에서 제안하듯, "불확정성을 적극 이용"하고 "고정된 형태로 한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들의 움직임은 보다 더 역동적으로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킬 수 있"[11]다. 이를 상기한다면, "트랜스젠더퀴어 바텀알바"라는 '모순'을 인식하는 것이 섹스를 통해 내 몸의 경계와 자아-타자의 경계를 허무는 경험으로 이어지고, "섹스를 통해 정체화"[12]하고자 하는 서사가 더 이상 기괴하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없다. 오히려 (오드리 로드가 제안하듯) 성애(eros)를 활용한 생명력과 창조적 에너지를 향유하는 능력이자 타자의 윤리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나 정체성이나 범주로 호명되지 않는 불확정적인 '타자들'과의 마주침 혹은 발견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파장을 예고"[13]하기도 한다. 단일 정체성이 아닌 다양하게 중첩된 정체성은 무한대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조선/한국사회의 역사에서 등장한 '변태, 부랑인, 불구, 혼혈아, 불량소년(녀), 토막민, 걸인' 등의 무수한 존재들은 기존의 정체성의 틀만으로는 제대로 인식되거나 설명될 수 없으며, 이는 운동과 학문 모두에 일정정도 당혹감을 선사한다. 다른 한편, 장애 정치학은 오랜 시간 몸의 '차이'를 병리화하는 사회적 기준에 맞서 장애인의 정체성을 긍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위험천만한 산업 생산 현장이나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등에서 벌어지는 영구적 전쟁은 '불

10) Alison Kafer, "Desire and disgust: My ambivalent adventures in Devoteeism", 2012; 전혜은, 「장애와 퀴어의 교차성을 사유하다」, 57쪽에서 재인용.
11) 나영, 「페미니즘과 퀴어, 그리고 적녹보라 패러다임」, 123쪽.
12) 도균, 「게이라는 게 이쪽이라는 뜻이야?」, 205쪽.
13) 김보명, 「공백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용기로부터 시작하는 페미니즘, 교차성」, 82쪽.

구자', '장애인'이 되는 잠정적 '비-장애인'들의 존재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장애인/비장애인의 이분법적 정체성 범주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동시에 정체성 중심의 장애 정치학이 어디 까지를 의제로 취급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의 혼란이 퀴어 정치학에서도 발생한다. 이를테면, 게이와 레즈비언 같은 '동성애'('이성애'도 마찬가지인데) 성적 지향은 그것만으로 독립적으로 성립될 수 없고, 나와 타인의 젠더 범주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트랜스 정치학은 바로 그 젠더 범주를 문제삼기에, 결과적으로 트랜스 정치학은 퀴어 정치학(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정치학, 장애정치학 등)을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하도록 한다.[14] 이렇듯 단일한 정체성의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복잡한 권력 작동 속에서 존재하는 타자의 '(재)발견'은 합리적이고 규범적 주체 안에 제한된 '나'를 폭로하는 탈-주체화 및 자기 해체적 작업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끊임없는 "경합, 중첩, 불화를 사유"하고, "혼란이 초래하는 두려움"을 기꺼이 끌어안겠다는 윤리를 수반할 것을 요청한다.

## 나가며

두 권의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폭과 깊이는 부족한 필자의 역량으로 핵심을 요약하고 분석을 제시하기는 역부족임이 분명하다. 대신, 마지막으로 필자의 시각에서 교차성 정치학의 앞으로의 더 다채로운 논의를 위해 짤막한 제안을 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먼저, '장애와 퀴어'의 교차성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논의가 앞으로 더 풍부하게 나오길 기대한다. 『퀴어 페미니스트, 교차성을 사유하다』에서 저자들이 지적하듯, 한국사회에서 장애와 퀴어의 교차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여전히 쉽게 찾아보기 어렵지만, (특히)트랜스젠더퀴어와 장애인

14) 루인, 「젠더로 경합하고 불화하는 정치학」, 104-8쪽.

의 몸은 의료적 병리화와 의료적 지원, 국제적 장애·질병 기준이나 법적 정의 등에 이르기 까지 현실적으로나 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논의를 요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체성장애(GID), 성별위화감(gender dysphoria) 등 질병 범주화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커다란 연구 주제지만, 이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장애정치학과의 관계 문제다. 예를 들어, 미국 장애인법은 GID를 장애 범주에서 배제해왔다. 미국 장애인법은 "복장전환, 트랜스섹슈얼리즘, 소아성애, 노출증, 관음증, 성별정체성 장애(GID)"를 열거해 이것이 신체적 손상에 기인하지 않는 '그 밖의 성적 이상들'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GID와 함께 '장애' 범주에서 배제되는 다른 상태들에는 "게임중독, 도벽, 방화벽, 불법적 약물사용"이 열거된다. 이는 결국 장애인법이 GID를 '장애'에서 배제함으로써 트랜스젠더의 병리화·타자화에 가담하는 모순적이고 복잡한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Puar는 장애인의 몸과 몸의 '생산성'에 대한 요구가 젠더 규범과 결합해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새로운 생산성·규범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한다.[15] 한국 사회에서도 장애와 퀴어가 각각 또는 그 둘이 함께 생성해내는 역동들이 무엇인지를 발굴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장애/퀴어 정치학 모두를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또한 종차별이나 인간-동물의 위계화와 관련한 논의 역시 더 풍성해지길 기대한다. 『교차성X페미니즘』의 한 챕터로 들어간 「여자인 동물과 동물인 여자: 종차별주의를 넘어 교차성으로」가 이를 위해 굉장히 예리하고 풍부한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다. '생명정치' 이론이 인간 종에만 배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비생물 사물과 비인간 동물이 어떻게 생명/삶 체제를 떠받치는가 하는 것을 생명권력의 작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 위치짓는 논의가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16] 종차별

15) Jasbir Puar, "Disability", *TSQ: Transgender Studies Quarterly,* 2014. 더불어 Puar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담론화 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과 트랜스젠더의 교차성에 대한 논의가 '교차적 주체성'에 대한 강조에 머물 뿐 더 깊은 분석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교차성을 비판한다.

또는 비인간 동물·비생물 사물에 대한 위계는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비백인 등 소수자를 억압하고 삶과 죽음을 나누는 논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기도 하지만(소수자 인권운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호 "우리도 인간이다"를 떠올려 보자), 오늘날 환경 파괴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위기와도 연결되는 중층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종간의 교차성의 정치학은 '인간'임을 거부당해온 이들이 '인간'임을 드러내고 평등을 요구함으로써 '인간'의 지평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해방의 기획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것은 오직 '인간'이기에 행할 수 있는 '비인간화'(동물화·사물화)의 폭력성을 폭로하면서 '인간' 되기를 거부하는,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

16) 대표적으로 Mel Chen, *Animacies: Biopolitics, Racial Mattering, and Queer Affect,* Durham and London: Duke Up, 2012.